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담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 한사람만 이 지구에 살고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물론,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의 권리도 지켜져야한다. 그렇지만, 인권이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킨다는 가정에서 말하여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라면 담배를 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더 안 좋은 영양이 있으므로 시작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사람에 대해 안좋은 영향만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은 여성인권자들이 한국사회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녀불평등의 예로서 담배문제를 거론합니다. 그 당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와 같은 사람의 생각을 조금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한국여성은 남성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저를 포함해서 한국의 많은 많은 남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남성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적당한 정도 피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사람을 어느정도 생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